

부산출입국관리소, 울산 지역에서도 살인단속 자행해

8월 27일 울산 우정동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40여명의 부산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 씨(남,33)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하였다. 작홍근 씨(남,33)는 모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현재 작씨는 중환자실에 있으며 사망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독한 상황이다. 우선 뇌출혈이 심각하고 안면이 거의 깨졌다. 전신 역시 골절을 입었다. 두개골이 깨진 것에 압박이 있어 두개골 성형술만 일차적으로 진행한 상태고 앞으로 치료할 부분이 더 문제라고 한다. 몇 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노동자는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급한 단계에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출입국사무소 쪽에서는 자신들의 살인 단속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의 책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회사 역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소는 8월을 넘어서면서 살인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통은 흥기를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때려가면서 단속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들을 눕혀놓고 밟아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가뒤통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단속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은 분명한 위법이고 극악한 인권 침해다. 부산출입국은 이러한 버릇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불법으로 저지르면서, 이제는 '살인'까지 행하고 있다.

울산이주민센터는 민주노총 및 울산 지역 제 사회단체, 노동조합에게 이 사실을 알려내고 부산출입국의 극악한 단속에 대한 폭로와 규탄 투쟁, 현재 추락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 9월 4일, 오전 중으로 긴급하게 대책위를 소집하려 합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 9월 10일 오전 10시 부산출입국규탄집회를 부산, 경남 이주공대위 동지들과 함께 합니다. 이 집회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와 향후 투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살인단속, 살인적 탄압 범무부 규탄 투쟁에 함께합시다. 연대 부탁드립니다.
- 빠르게 이 사실을 단위 내에서 소통해주시고,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백선영

울산이주민센터